

초급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목록 선정 연구

장윤정 · 이세훈

Jang Younjung, Lee Schoon. 2017. 3. 31. **A Study on the list of collocations for Francophone Korean language beginners.** *Bilingual Research* 66, 107-130.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list of basic Korean collocations for francophone Korean learners classified by topic. A collocation is composed of two words. When studying Korean, francophone learners often encounter problems when guessing the connecting verb. Therefore, francophone learners of Korean often have issues when they extend the use of collocations. And if they do not learn the correct meaning of the collocations, they are likely to encounter difficulties when trying to literally translate French collocations into Korean. In order to help francophone Korean beginners with this collocation problem, this paper has compiled a list of commonly-used collocations by analysing French language materials. These collocations were selected for the frequency of their use in authentic communi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ey words】 Francophone Korean learners(프랑스어권 학습자), collocation(연어), classification of topics(주제별 분류), beginner level(초급), Analysis of French language materials(프랑스어 교재 분석), Collocation list(연어 목록)

1. 서론

계통적인 측면에서 서로 공통점이 거의 없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는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 어휘 학습양이 방대하다고 느끼며¹⁾ 어휘의 의미를 기억하

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초급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편인데²⁾ 이러한 초급 학습자들은 모국어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어휘는 모국어의 영향이 오랫동안 잔존하는 영역이므로(김혜란, 2014:21) 이들에게 어휘론적 간섭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어휘학습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이에 대한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 한국어: 옷을 입다, 반지를 끼다, 안경을 쓰다, 시계를 차다, 신발을 신다, 목걸이를 하다, 허리띠를 매다
- 프랑스어: porter + N (상태), mettre + N (동작)

(2) faire un pique-nique - 소풍을 가다

(하다) (소풍을)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 ‘착용’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을 보면 명사에 수반되는 동사가 다양한데 반해, 프랑스어에서는 하나의 동사로만 대응되며 단지 상태와 동작에 따라서만 ‘porter’와 ‘mettre’로 대응될 뿐이다(신자영, 2005:194). 어휘론적 간섭현상은 주로 학습자가 모국어를 목표어로 직역하는 경우에 빈번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2)의 ‘faire un pique-nique’라는 프랑스어 표현에 대한 한국어 대응 표현은 ‘소풍을 가다’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faire(하다)’를 직역하여 ‘소풍을 하다’라고 표현

-
- 1) 장윤정(2016:115)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방대한 어휘의 양’(45%)과 ‘불어와의 차이’(21%)로 인해 한국어 어휘 학습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2) 장윤정(2016)에서 실시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완전 초급~초·중급’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프랑스 거주자의 경우 92%, 한국 거주자의 경우 60%로 대다수의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초급에 밀집되어 있다.

해서 어휘 선택의 오류를 보인다.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 시 겪는 어려움은 연어(collocation) 습득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래 (3)의 예문들은 프랑스어 연어와 한국어 연어의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여준다.

(3)

- Il **fait** la lessive. 그는 빨래를 **합니다**.
- Il **fait** le lit. 그는 침대를 **정돈합니다**.
- Il **fait** les courses. 그는 장을 **봅니다**.
- Il **fait** un pique-nique. 그는 소풍을 **잡니다**.

(3)에서 프랑스어 동사 ‘fait/faire’는 수반되는 명사에 모두 공통으로 제시되는데 한국어는 명사에 따라 ‘하다’, ‘정돈하다’, ‘보다’, ‘가다’와 같이 각각 다른 동사로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예문에서 프랑스어는 동사(연어변)의 수가 적은데 반해 한국어의 연어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은 어휘 학습양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따라서 이들은 개별 어휘에 대한 암기보다 연어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모국어와 일대일 번역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초급 학습자에게 연어 교육을 할 경우 개별 의미 파악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모국어 간섭에 따른 비문과 어휘적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다(오명희, 2012:1). 그러므로 초기 한국어 학습의 혼란을 경감시킬 수 있어 연어 교육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할 수 있다.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과 요구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개별 단어의 기본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는 의사소통의 실현과 맥락을 통한 어휘 학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휘의 결합으로 의미를 확장시키는 연어 교육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은 학문목적

보다 흥미 및 관심과 일상생활을 목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며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구어 중심의 어휘학습과 맥락을 통한 어휘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어 교육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어휘 학습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습득한 개별 어휘가 실제 의사소통에서 표현 능력과 연결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송대현·윤정아, 2015:329) 학습자들의 흥미 및 관심 분야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제별로 연어 목록이 선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와의 어휘적인 차이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어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 향상과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초급 대상의 주제별 연어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어의 개념과 연어 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

본 연구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차이로 어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연어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어의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에서 논의된 연어 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하겠다.

2.1 연어의 개념

연어(Collocation)의 개념은 공기관계에 놓인 언어 현상을 특징짓기 위해 J.R. Firth(1957)에 의해서 언어학 분야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³⁾ 이후

연어는 현재 순수언어학적 분야뿐만 아니라 응용언어학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⁴⁾ 현재 국내외의 여러 이론 언어학적 연어 연구에서는 ‘구성 요소의 긴밀한 결합’ 또는 ‘구성 요소간의 긴밀한 공기 관계’로 정의하는 것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신자영, 2005:186).

연어 개념에 대한 차이는 연어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문법적 연어와 어휘적 연어로 구분된다(Benson, 1997:42). 한국어 교육에서도 구성요소의 기능과 의미에 따라 문법적 연어와 어휘적 연어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문금현, 2002; 한송화·강현화, 2004; 임근석, 2010). 문법적 연어는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가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관계로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을 의미하며, 어휘적 연어는 두 어휘 요소가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관계로서 일정한 어휘적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을 의미한다. 연어는 형식상 통사 구성이므로 문법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미적으로는 어휘처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휘 교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어는 비록 통사 구성을 이루고 있더라도 두 구성 요소간의 결합 관계가 제한적이며 결합 과정에서 의미가 전이되기 때문에 연어 관계 연구는 어휘 교육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김규화 2010:145). 이에 본 연구는 어휘 교육 향상을

3) Geoffrey Williams(2001)에서 참조함. 원문은 다음과 같다. Le temps collocation a été introduit dans les années '30 par J.R. Firth, membre-fondateur de l'école contextualiste britannique, pour caractériser certains phénomènes linguistiques de cooccurrence.

4) 연어 연구는 연구 방법론의 차이에 의해 순수언어학적인 연구와 응용언어학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순수언어학적 연구는 ‘결론을 내리다’와 같이 ‘명사+동사’ 연쇄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연어와 관용표현의 구분 또는 관용표현의 하위 분류, 나아가 연어 자체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응용언어학적 연구 역시 자연어 처리에서의 연어 문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전 편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임근석, 2010:27).

목적으로 어휘적 연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연어의 구성 요소에서 무엇을 연어핵이고 무엇을 연어변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어의 정의만큼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멜츨(I. Mel'čuk)은 처음으로 연어를 이항관계로 보고 연어를 이루는 두 구성요소에 대해 선택, 피선택과 같은 개념을 체계적으로 부여하였다(임근석, 2010:83). 김진해(2000)는 연어핵과 연어변이 선택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논의한데 반해, 임근석(2010:89)은 분포의 제약만으로는 연어핵인지 연어변인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연어 구성 요소 중에서 의미적으로 보다 안정된 것을 연어핵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명사+동사'의 구성에서 명사가 동사보다 의미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명사를 연어핵으로 보는 것이다.

어휘의 통합적인 의미 관계에서 보면 연어는 관용표현, 자유결합과 함께 같은 층위에 놓일 수 있는데 구성 요소간의 결합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문금현(2002:219)에서는 연어는 관용구절에 비하여 구성 요소 사이의 결속력이나 통사적 제약의 정도가 약한 반면, 일반구절에 비하면 구성 요소 사이의 결속력이나 통사적 제약의 정도가 강한 편으로 보았다. 또한 의미 구조적인 면에서 연어와 일반 구절은 동일한 형태를 보이지만 자유로운 대치를 보이는 일반구절과 달리 특정 어휘 요소가 다른 어휘 요소를 요구함으로써 제한적인 공기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⁵⁾ 김진해(2000:85)는 기존 연구에서 대표적인 연어의 사례들로 제시되었던 착탈어, 연주어 등은 동일한 의미 함수를 공유하는 의미장일뿐 실제로 결합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결합을 연어 범주에서 제외시켰다.⁶⁾ 그러나 본

5) 문금현(2002:220)에서는 관용구절은 $A+B=C$ 로 연어와 일반구절은 모두 $A+B=AB$ 로 의미구조를 제시하였다.

6) 김진해(2000:71)는 연어의 유형을 전제적 연어와 관습적 연어로 분류하였고 전제적 연어가 관습적 연어에 비해 특정 어휘가 개념적으로 다른 어휘의 출현을 강제하기 때문에 결합 강도가 가장 높다고 제시하였다. 관습적 연어는 어휘들 간의 긴밀한 결합 관계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전제적 연어와 같이 어휘 개념 구조로는 포착하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일반구절, 즉 자유결합을 연어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자유결합은 모어 화자가 특별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학습자가 오류를 양산해 낼 수 있으므로 유용한 연어로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송화·강현화, 2004:300).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 연구는 연어 목록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연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⁷⁾

어휘 요소들 간의 공기 빈도가 높은 어휘적 연어이며 교재 출현 빈도가 높은 일반 구절을 포함한다.

2.2 연어 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

연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연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2007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⁸⁾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어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한국어 교재 분석과 말뭉치 분석을 토대로 연어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문금현 2002, 박숙영 2005, 박현정 2007, 허영임 2010, 김지은 2010, 이정현 2010, 장옥경 2011, 김동국·이상률 2013). 최근에는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학위논문들

기 힘들며 해당 사회가 세계를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특정 어휘와 긴밀하게 결합하는 구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 7) 기존의 연구들은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 빈도수를 연어 목록 선정 기준으로 삼았지만, 본 연구는 프랑스어 교재를 자료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교재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 8) 연어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연어 교육 내용 선정 및 교수방안에 대한 연구, 연어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 연어 교재 개발 및 사전 편찬에 관한 연구, 연어 대조에 관한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연어 교육내용 선정 및 주제별 연어 선정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대부분이다(강서영 2007, 정숙향 2007, 김병욱 2013, 진정정 2015). 그러나 이 연구들은 실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검토하지 않고 한국어 교재를 토대로 연어 목록을 제시했기 때문에 특정 언어권을 위한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연어 연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제별 제시를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실제 상황에서 학습한 표현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어들을 묶어서 제시하였다(허영화 2009, 송대현·윤정아 2015). 그러나 연어 목록을 등급별로 나타내거나 주제별로 분류하였다고 해도 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선정된 연어들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의사소통과 연결시키기에 부족함이 있다. 또한 특정 언어권을 대상으로 연어 목록을 선정할 때는 모국어어를 살펴 학습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어 목록을 선정하고 초급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 초급 연어 선정 및 대응양상 분석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세운 연어 목록 선정 기준에 의해 언어적 표현을 추출하였다.⁹⁾ 이렇게 추출된 언어적 표현 중에서 ‘명사+동사’ 형태만을 뽑아 초급 연어 등급

9) 본 연구는 프랑스어 연어와 한국어 연어간의 대조분석이 아닌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한국어에 대응했을 때 본고의 연어 기준에 맞는 연어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프랑스어 연어 개념을 따로 논의하지 않고 프랑스어 교재에서 추출한 결합 관계의 어휘들을 ‘언어적 표현’이라 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을 확인한 후 학습자에게 간섭 현상을 줄 수 있는 초급용 언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선정된 초급용 언어와 한국어 언어와의 대응 관계 양상을 살폈다.

3.1 언어 자료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언어 목록을 선정하고 자 프랑스어 교재 8권을 분석하였다.¹⁰⁾ 프랑스어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에 곧 그들의 생각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 매우 적극적인 프랑스어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들이 원하는 의사표현 방식을 프랑스어 교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들은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구어와 맥락 중심의 어휘 학습을 요구하는데 교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보면 그들이 선호하는 주제와 표현을 목록화할 수 있으므로 프랑스어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초급 언어 자료 선정에 앞서 기초자료로 본고의 2.1장에서 정의한

10) 교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로서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교육기관인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초급 교재뿐만 아니라 중급 교재도 살펴보았는데 프랑스어에서는 중급에서 제시되었더라도 언어적 표현이 한국어로 대응시 초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급 교재에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대상 교재는 다음과 같다. 『Alter ego, 1-3』, HACHETTE(2007), 『Café crème, 1-2』, HACHETTE(2010), 『Connexions, 3』, Didier(2008), 『Vocabulaire progressif du français, 1-2』, CLE(2015)으로 『Café crème 3』 대신 『Connexions』 3을 분석한 이유는 『Café crème 3』의 주제가 『Café crème 2』의 주제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살피고자 중급 교재로 많이 사용되는 『Connexions, 3』을 대상으로 삼았다. 『Vocabulaire progressif du français』의 1권과 2권은 어휘 학습을 위한 분리형 교재로 다른 통합형 교재보다 풍부한 어휘를 제시하고 있어 선정하였다. 『Alter ego』는 A교재로, 『Café crème』와 『Connexions』은 C교재로 그리고 『Vocabulaire progressif du français』는 V교재로 제시하겠다.

언어 기준에 따라 프랑스어 교재에서 언어적 표현을 추출하였다. 프랑스어 어휘끼리 긴밀한 결합 관계를 가진 어휘적 언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후 자유결합 관계의 일반구절이어도 교재 출현 빈도가 높고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표현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총 1,812개의 프랑스어 언어적 표현을 추출하였다.¹¹⁾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초급 언어 목록을 선정하기 위하여 1,812개의 표현들을 한국어로 대응 시 ‘명사+용언’의 형태로 대응되는 것만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명사+용언’의 형태가 한국어 어휘적 언어의 가장 기본구성으로서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 오류의 대부분이 ‘명사+용언’이며 이 중 용언의 어휘적 오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¹²⁾ 그러나 프랑스어 어휘적 표현에서 ‘être+형용사’의 형태가 한국어 번역시 언어 형태가 아닌 단지 형용사로 대응되므로 한국어의 서술격조사 ‘이다’에 해당되는 être는 제외시켰다.¹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사+동사’만을 다루고자 한다.

프랑스어 교재에서 추출한 모든 언어적 표현이 한국어 어휘 교육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수를 하다(faire le stage), 책임감을 가지다(prendre la responsabilité), 성금을 내다(faire un don) 등의 어휘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초급용 어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 초급 어휘 교재에서는 출현 빈도가 5회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

11) 각 교재별로 추출된 프랑스어 언어적 표현의 개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어휘가 포함된다.

교재	초급					중급		
	A1	A2	C1	C2	V1	A3	C3	V2
결과	99	200	245	188	345	272	203	260
합계	1,812							

12) 이승연·최연지(2007)에서 말뭉치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의 오류 유형과 빈도를 분석한 결과 ‘체언+용언’형의 결합 오류가 전체 오류의 41.7%로 유의미하였으며, 이 중 용언의 어휘적 오류가 36.9%라고 밝혔다.

13) 예를 들어 ‘être heureux’(이다+행복한)은 한국어 형용사인 ‘행복하다’로 대응된다.

타나므로 프랑스어권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로 발화시 이러한 표현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에 따라 숙달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면도 간과할 수 없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전 세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휘 목록을 숙달도별로 제시하였다.¹⁴⁾ 하지만 자국에서 한국어 학습을 하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은 현실적으로 처한 상황이 국내 학습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실제성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초급 어휘 목록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실제 발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용한 어휘들은 초급의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바탕을 두고 한국어 교육에서 제시한 초급 목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프랑스어 교재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연어는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초급 연어 목록으로 277개가 선정되었다.¹⁵⁾

3.2 대응관계를 통해 선정된 연어 목록 분석

선정된 277개의 연어가 프랑스어권 학습자에게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목록에 대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의미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

14)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1,2’와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개발 1-4단계’가 있다.

15) 1,812개의 언어적 표현은 명사+동사, 명사+형용사, 수식어+명사, 명사+명사 형태로 구성되었으나 한국어와의 대응을 통해 추출된 277개는 명사+동사형으로만 구성되었다. 그리고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에서 초급용 어휘에 해당되지 않아도 교재 중복도가 4회 이상인 연어는 목록에 포함시켰다. 또한 불어전공자를 통해 한국어 번역이 정확한지에 대해 감수를 받았다.

다. 이러한 대응 양상을 통해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어휘적 간섭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오류를 살펴보면 주로 동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동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사에 결합되는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 현장이나 학습자 말뭉치를 통해 보면 ‘명사+동사’ 결합의 오류가 명사에 의한 서술어 선택 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事故)에 나오다’라는 오류문은 학습자가 ‘나오다’라는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고’라는 명사가 ‘나오다’를 취할 수 없다는 언어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다(이승연, 최은지 2007:305). 이는 어휘적 간섭현상으로 생긴 오류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명사를 언어핵으로 보고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대응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프랑스어 연어를 한국어로 대응했을 때 프랑스어 동사는 하나인 반면에 한국어 동사는 다양하게 나타났다.¹⁶⁾ 다음은 선정된 277개의 연어 중 프랑스어 동사 ‘donner’와 ‘prendre’에 대응하는 한국어 연어에 대한 예이다.

(4)

	프랑스어 연어	한국어 연어
	un cadeau (선물)	선물을 주다
donner (주다)	+ des concerts (콘서트)	콘서트를 열다
	une interview (인터뷰)	인터뷰를 하다

16) 신자영(2005:193)은 한국어 연어와 다국어 연어의 대응 양상을 5가지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한국어 연어의 다국어 대응 사전을 기술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간섭 현상에 초점을 맞춰 프랑스어를 기준으로 한 한국어 대응 양상을 명사+동사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prendre (잡다)	+	un coup de balai (빗자루)	빗자루로 쓸다
		la main (손)	손을 잡다
		la voiture (차)	차를 타다
		un café (커피)	커피를 마시다
		une photo (사진)	사진을 찍다

(4)는 사전적 제1 의미인 ‘주다’의 뜻을 가진 프랑스어 동사 ‘donner’를 구성요소로 하는 다양한 연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동사는 프랑스어 연어에서 하나의 동사로 표현되는데 한국어로 대응되면 다양한 동사로 나타난다. 즉 ‘des concerts(콘서트), une interview(인터뷰), un coup de balai(빗자루)’에 대한 동사는 프랑스어에서 ‘donner’ 하나인 반면 한국어 동사는 명사에 따라 각각 다르게 출현하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들은 어휘의 양이 상대적으로 방대하다고 느낀다. ‘잡다’를 기본 의미로 갖고 있는 ‘prendr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사에 따라 한국어 연어에서는 다양한 동사로 대응된다. ‘le main(손), la voiture(차), un café(커피), une photo(사진)’을 보면 이러한 명사들 사이에서는 의미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볼 수 없지만 하나의 동사, prendre에 대응된다. 이에 반해 한국어에서는 ‘손, 차, 커피, 사진’은 각각 ‘잡다, 타다, 마시다, 찍다’로 대응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명사 즉 연어핵을 중심으로 공기 관계를 갖는 동사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 밖에 ‘avoir(갖다), faire(하다), ‘mettre(놓다), apporter(가져오다)’ 등의 동사들도 한국어 대응 시 함께 놓이는 명사에 따라 다양한 동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연어 목록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¹⁷⁾

17) 이를 확인하고자 9명의 프랑스어권 초급 학습자들에게 프랑스어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한 후 오류 답안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명사에 대한 의미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있었지만 연어 관계를 갖는 동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였다.

① 동사 avoir(갖다)가 포함된 문장: J'ai un accident.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나는

4.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주제별 언어 교육 내용

본 연구는 선정된 언어 목록을 주제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언어를 개별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별로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은 실제 의사소통에서 맥락에 맞는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선정한 언어 목록들을 실제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4.1 주제 범주화

주제는 말이나 글의 중심 화제로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학습자의 요구에 맞고 교수의 필요성이 큰 주제는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유의미한 학습을 이끌 수 있어 주제 선정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Richards,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다수의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을 향상시키고 중급 이상으로 학습을 지속시키기 위해 이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들로 범주를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운정(2016:137)의 초급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어휘 교재에서 제시한 주제들을 토대로

사고가 났다'이다.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오류문으로는 '나는 사고가 *있다, *당하다.' 등이 있었다. J'ai perdu du temps.의 경우에도 '나는 시간을 낭비했다.'인데 학습자들은 '나는 시간을 *보내다, *아깝게 지내다.'로 오류문을 발생시켰다.

- ② 동사 faire(하다)가 포함된 문장: Je fais le lit du matin.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나는 아침에 침대를 정리한다.'이다. 이에 대한 오류문으로 '나는 아침에 침대를 *보다, *하다.'가 있었다.
- ③ 동사 mettre(놓다)가 포함된 문장: Je met le réveil avant de me coucher.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나는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춘다.'이다. 이에 대한 오류문으로 '나는 자기 전에 알람을 *준비한다, *한다.'가 있었다.
- ④ 동사 apporter(가져오다)가 포함된 문장: Il appote ses achats le dimanche.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그는 일요일마다 시장을 본다.'이다. 이에 대한 오류문으로 '그는 일요일마다 시장을 *가져오다.'가 있었다.

하되 앞서 살펴본 8권의 프랑스어 교재에 제시된 주제를 확인하여 재구성한 결과 18개의 주제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¹⁸⁾

<표 1>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언어 주제

가족, 감정표현, 건강, 관계, 교통, 날씨, 묘사(인물/행동), 사건과 인물, 성격, 쇼핑, 식사, 여가생활, 옷, 은행, 의사소통, 일상생활, 직업, 학교와 교육

선정한 주제는 3장의 언어 목록을 바탕으로 하며 일차적으로 명사(언어핵)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언어변인 동사를 함께 살펴 분류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다’와 ‘영화를 찍다’는 여가생활과 직업에 각각 분류하였는데 명사(언어핵)에 해당하는 ‘영화’만으로는 해당 주제를 선정하기 어려워서 각각의 동사를 살펴 전체 의미를 파악하여 항목에 포함시켰다.

프랑스어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기존 주제 목록에 ‘관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했다. 의사소통하기를 좋아하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제는 일반적인 대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

18) 장윤정(2016:137)은 초급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재 주제 및 상황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모형 개발 2단계의 주제들과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1단계에서 제시한 주제들을 검토한 후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들이 초급 수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평가기준의 1급과 2급을 분류하는 기준 항목에 제시된 주제들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25개의 주제들이 선정되었다(인사. 가족, 의사소통, 집, 일상생활, 식품 구매하기, 요리와 식사, 시간, 옷, 신체, 건강, 신체 묘사, 성격, 감정 표현, 학교와 교육, 직업, 날씨, 방향 및 교통, 주요 기관, 지리 정보, 여행, 여가 생활). 그리고 프랑스어권 학습자 185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주제 만족도를 실시하였는데 ‘주제가 흥미롭고 실용적이어서 매우 유용하다’, ‘대만족, 다양한 주제 구성이 매우 유용하다’ 등으로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주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윤정(2016)을 참고로 했지만 3장에서 추출한 언어 목록을 중심으로 재설정하여 누락되거나 추가된 주제들이 있다.

교재에 제시된 ‘관계’에 대한 연어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관계’에 대한 연어

교재명	주제 및 단원명	연어
A1	하나는, 그리고 다른 것들은, 특별한 날 - 관계와 변화	recevoir les amis (친구를 맞이하다) prendre un verre (한 잔을 하다) prendre la date (날짜를 잡다) fixer un rendez-vous (약속을 정하다)
A2	나는 관계있어! 같이 사는 것은 쉽지 않아!	offrir un repas (식사를 대접하다) faire un don (성금을 내다)
C1	나와 다른 사람들	avoir rendez-vous (약속이 있다) avoir des amis (친구가 있다)
A3	다양한 관계에서 이미지	baisser les bras (손을 놓다) donner un coup de main (도움을 주다) prendre contact (연락이 되다) demander des nouvelles (안부를 묻다) demander un service (부탁을 하다)
V2	관계와 감정	avoir une relation (관계를 맺다)

<표 2>에 제시된 연어들은 ‘관계’와 관련된 연어들로 한국어 교재에서는 ‘일상생활’이나 ‘만남’을 다루는 단원에서 나타난다. 반면 프랑스어 교재에서는 ‘관계’라는 단원명으로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을 교재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어권 화자들이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제 선정에 포함시켰다.

4.2 주제별 연어 내용

선정된 18개의 주제별로 제시된 연어 목록은 <표 3>과 같다. 여가 생활이 43개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 32개, 일상생활 28개, 학교와 교육이 20개로 나타났다.

<표 3> 초급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주제별 언어 목록

주제	언어
가족	결혼생활을 끝내다, 딸이 있다, 독신으로 살다, 청소년기를 보내다, 책임감을 가지다, 청혼을 하다, 출생신고를 하다
감정 표현	감정을 드러내다, 겁을 내다, 두려움을 느끼다, 비난을 하다, 싫은 얼굴을 하다, 사랑에 빠지다, 뽀뽀를 하다, 아쉬움을 드러내다, 표정을 짓다
건강	(유행성) 감기에 걸리다, 머리가 아프다, 멀미가 나다, 목이 아프다, 몸매를 유지하다, 살이 빠지다, 약을 먹다, 열이 나다, 진찰을 받다, 이가 아프다, 체중이 줄다, 허리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귀가 먹다, 금연을 하다, 입을 벌리다
관계	손을 놓다, 친구들을 맞이하다, 한 잔을 하다, 식사를 대접하다, 관계를 맺다, 도움을 주다, 성금을 내다, 낱씨를 정하다, 약속을 정하다, 약속이 있다, 연락이 되다, 안부를 묻다, 친구가 있다, 부탁을 하다, 작별 인사를 하다
교통	기차를 놓치다, 기차를 타다, 대중교통을 타다, 번수를 하다, 소음을 내다, 시간이 걸리다, 오른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가다, 자동차를 타다, 자전거를 타다, 운전을 하다, 직항을 타다, 벌금 딱지를 떼다, 시간을 낭비하다, 시간을 벌다
날씨	날씨가 덥다, 날씨가 따뜻하다, 날씨가 좋다, 날씨가 춥다, 우비를 입다, 우산을 쓰다, 추위를 타다
묘사	분위기가 있다, 인상이 깊다, 품위가 있다, 힘이 세다, 배가 나오다, 배에 힘을 주다, 이미지를 심다, 사람을 생각하다
사건과 인물	의심을 받다, 의심을 사다, 의심이 들다, 의심이 풀리다, 사고가 나다, 사고를 내다, 사실을 부인하다, 사실을 인정하다, 상황을 파악하다, 소식을 듣다, 문제가 생기다, 문제가 있다, 젊은이들을 격려하다, 존경을 하다, 주목을 받다
성격	성격이 낙천적이다, 고집을 부리다, 마음이 착하다, 매력에 있다, 바른 말을 하다
쇼핑	돈을 바꾸다, 가격을 의심하다, 가격을 묻다, 계산을 하다, 낭비를 막다, 쇼핑을 하다, 잔액을 내다, 장을 보다, 혜택이 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식사	주문을 받다, 메뉴를 추천하다, 설탕을 넣다, 식욕이 나다, 식탁을 차리다, 아침을 먹다, 점심을 먹다, 저녁을 먹다,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하다,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여가 생활	텔레비전에 나오다, 영화를 추천하다, 자리를 잡다, 축제가 있다, 콘서트를 열다, 티켓이 있다, 표를 사다, 공놀이를 하다, 기분전환을 하다, 기타를 치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마라톤을 하다, 산책을 하다, 소리를 낮추다, 소리를 높이다, 스키를 타다, 시간을 보내다, 방향을 보내다, 휴가를 보내다, 시간이

	있다, 시간이 나다, 악기를 연주하다, 음악을 연주하다, 정원을 가꾸다, 채소를 재배하다, 초상화를 그리다, 춤을 추다, 타르트를 만들다, 텐트를 치다, 트럼펫을 불다, 파라솔을 세우다, 피아노를 치다, 휴식을 취하다, 가방을 풀다, 짐을 풀다, 여행 가방을 싸다, 여행을 권하다, 가방을 들다, 꽃다발을 만들다, 꽃을 가꾸다, 꽃을 꺾다, 과일을 재배하다, 세계(여러나라)를 돌다
옷	구멍이 나다, 천을 대다, 렌즈를 끼다, 망토를 걸치다, 보석을 하다, 신발을 신다, 안경을 쓰다
은행	계좌를 만들다, 계좌를 없애다, 대출을 받다, 돈을 모으다, 돈을 찾다, 선금을 내다, 선금을 보내다, 아파트를 계약하다
의사 소통	정보를 문의하다, 견해를 묻다, 말문이 막히다, 설명을 하다, 일리가 있다, 지지를 보내다, 생각이 있다, 대답을 하다, 대화를 하다, 말을 덧붙이다, 말을 취소하다, 말을 하다, 문자를 받다, 발언권을 주다, 발언을 요구하다, 의견을 나누다, 의견을 내다, 의견이 일치하다, 조언을 구하다, 조언을 하다, 질문을 하다
일상 생활	불을 켜다, 소풍을 가다, 거품 목욕을 하다, 고양이를 키우다, 눈을 뜨다, 늦잠을 자다, 사진을 찍다, 샤워를 하다, 신문을 보다, 알람을 맞추다, 우편물을 찾다, 잠이 모자라다, 창문을 닦다, 청소기를 돌리다, 침대를 정돈하다, 커피를 마시다, 타일을 닦다, 화장을 하다, 몸을 씻다, 수화기를 들다, 빗자루질을 하다, 빨래를 개다, 빨래를 널다, 빨래를 하다, 소리가 나다, 연기가 나다, 응답기를 확인하다, 정기 구독을 하다
직업	경험이 있다, 기회가 있다, 연극을 공연하다, 연극을 하다, 영화를 찍다, 장면을 연출하다, 사업에 몰두하다, 역할을 맡다, 강의를 하다, 단체를 세우다, 돈을 벌다, 명단을 작성하다, 정보를 검색하다, 번역 작업을 하다, 보고를 하다, 서비스를 하다, 승진을 하다, 실수를 하다, 실직을 당하다, 연수를 하다, 실습을 받다, 인터뷰를 하다, 일을 찾아내다, 일이 있다, 기업을 세우다, 지시를 내리다, 자금을 지원하다, 책을 내다, 취직을 하다, 퇴직을 하다,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정보가 있다
학교와 교육	원칙을 세우다, 줄을 서다, 지각을 하다, 시험지를 채점하다, 교류를 하다, 입학 자격을 갖다, 문장을 만들다, 수업을 듣다, 시간표를 문의하다, 시험을 보다, 합격을 하다, 시험을 보다, 예시를 들다, 전공을 선택하다, 졸업을 하다, 책을 신청하다, 책을 치우다, 학위를 받다, 답을 얻다, 개강을 하다

이와 같이 주제별로 제시한 언어 목록은 프랑스어권의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여가 생활’에서 ‘타르트를 만들다, 선금을 내다, 정원을 가꾸다, 여행을 권하다, 꽃다발을 만들다, 파라솔을

세우다, 텐트를 치다’ 등은 한국어 연어 목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지만 프랑스어 교재에서 4회 이상의 교재 중복도를 보인다. 또한 ‘옷’에 대한 주제에서도 ‘망토를 걸치다’는 5회의 출현 빈도를 보였다.¹⁹⁾ 이것은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한국어에서 ‘착용’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다양한데 반해 프랑스어에서는 ‘porter’와 ‘mettre’로만 대응되기 때문에 ‘망토를 입다’로 어휘 선택의 오류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어권 의복 문화를 반영한 ‘망토를 걸치다’는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여 어휘론적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연어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선정된 연어들이 프랑스어권 문화와 가치관이 반영되면서도 간섭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휘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제시한 초급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이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고자 <표 3>에서 제시한 연어 목록이 초급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기존에 한국어 교육에서 연구된 초급용 연어 목록과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교육의 초급 연어 목록은 <표 4>와 같다.²⁰⁾

19) 8권의 분석 대상 교재에서 ‘시간을 보내다(*passer du temps*)’와 ‘집을 내다(*avoir peur*)’는 7회로 가장 많은 교재 출현 빈도를 보였다.

20)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해 선정한 연어 목록과 한국어 교육에서 연구된 초급 연어 목록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 연구와 비교·검토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연어 목록은 특정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 목록이므로 비교 자료가 한국적인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범위한 자료에서 추출된 연어 목록이어야 한다고 사료되었다.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세 연구는 기존 연구 중에서도 조사 자료를 광범위하게 본 것들이다. 문금현(2002)에서는 대학기관 한국어 교재, 문어 텍스트, 구어 텍스트에 자주 출현하는 목록을 조사하여 111개의 초급 연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박숙영(2005)에서는 대학기관의 교재 분석과 각 기관의 한국어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급별 교육용 연어 299개를 선정하였다. 장옥경(2011)의 경우 한국어 교재, 세종국어말뭉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급 표준 어휘 목록’ 그리고 ‘경희 코퍼스’를 종합하여 107개의 초급 연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세 연구를 종합하여 ‘명사+동사’의 형태만을 추출하였으며 ‘밥을 먹다’, ‘책을 읽다’와 같은 일반 구절은 제외시켜 67개를 <표 4>와 같이 추출하였다.

<표 4>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초급 언어 목록

감기에 걸리다 / 값을 깎다 / 계획을 세우다 / 고장이나다 / 그림을 그리다 / 김치를 담그다 / 길이 막히다 / 길을 잃다 / 꽃이 지다 / 꽃이 피다 / 꿈을 꾸다 / 눈이 내리다 / 눈이 오다 / 눈을 감다 / 눈을 뜨다 / 냄새가나다 / 노래를 부르다 / 돈이 들다 / 돈을 내다 / 돈을 벌다 / 담배를 피우다 / 땀이나다 / 머리를 감다 / 머리를 깎다 / 모자를 쓰다 / 목이 마르다 / 문제를 풀다 / 바람이 불다 / 바이올린을 쳐다 / 반지를 끼다 / 밥을 새우다 / 배가 고프다 / 배가 부르다 / 병에 걸리다 / 불이나다 / 불을 끄다 / 불을 켜다 / 비가오다 / 비가 내리다 / 사진을 찍다 / 생각이나다 / 생각이 들다 / 소리가나다 / 소리를 지르다 / 소리를 내다 / 스트레스를 받다 / 시간을 내다 / 시간이나다 / 시간이 걸리다 / 시험을 보다 / 신경을 쓰다 / 안경을 쓰다 / 안경을 끼다 / 우산을 쓰다 / 열이나다 / 이를 닦다 / 이불을 덮다 / 이해가 가다 / 잠을 자다 / 잠이오다 / 전화가오다 / 전화를 걸다 / 전화를 받다 / 춤을 추다 / 코를 풀다 / 피아노를 치다 / 화를 내다

<표 3>과 <표 4>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언어는 15개로 ‘감기에 걸리다 / 눈을 뜨다 / 목이 마르다 / 배가 고프다 / 불을 켜다 / 사진을 찍다 / 생각이나다 / 소리가나다 / 시간이나다 / 시간이 걸리다 / 시험을 보다 / 안경을 쓰다 / 열이나다 / 우산을 쓰다 / 피아노를 치다’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교육에서 제시한 초급 언어 목록에는 주로 일상생활과 학습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다(장옥경, 2011:39). 하지만 <표 3>에서 제시한 목록에는 일상생활과 학습과 관련된 표현뿐만 아니라 관계, 의사소통, 사건과 인물 등의 주제에 따른 다소 추상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어 어휘의 특성상 이런 어휘들은 한자어로 구성되어 초급용 어휘 교육에서는 다루이지 않고 있으나 초급 프랑수어권 학습자들에게 이 언어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실제성 있는 어휘 교육을 실현시키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독신으로 살다’, ‘지지를 보내다’, ‘존경을 하다’, ‘주목을 받다’ 등은 프랑수어 교재에서 출현 빈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교재 출현 빈도가 높은 언어들이 추상적인 의미를 갖

고 있다고 해서 목록에서 제외시키거나 초급 수준의 어휘로 바꾼다면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구어와 맥락 중심의 어휘 학습을 원하는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연어들을 목록에 포함시켜 교육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초급 연어 교육 내용을 주제별로 제시하여 이들의 어휘 학습 향상과 중급 이상으로의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차이로 인해 어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에게 연어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어 목록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어 교재 분석을 통해 실제 사용되는 연어적 표현들을 추출하고 한국어와의 대응 양상을 살펴 간섭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연어를 실제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주제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엿하게 한 모듬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연어를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해 실제적인 어휘 교육 내용으로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제별로 선정된 어휘들이 반드시 해당 주제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초급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중급과 고급을 위한 연어 목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 방안과 함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어휘 학습 향상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후속 연구로 남긴다.

<참고 문헌>

- 강서영(2007).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언어 사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규화(2010). 한국 성인 영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에 나타난 언어 오류 연구, <현대 언어교육> 11권 2호, 현대영어교육학회, 98쪽~127쪽.
- 김동국·이상률(2013).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교육 방안 연구, <언어과학> 제20권 4호, 한국언어과학회, 19쪽~34쪽.
- 김병욱(2013).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언어 교육 방안 연구- ‘체언+용언’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2010). 한국어 언어 교육 내용과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해(2000). 『언어 연구』, 한국문화사.
- 김혜란(2014). 프랑스어 학습에서의 한국어 간섭 오류, <프랑스어문교육> 47호,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7쪽~34쪽.
- 김중섭 외(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문금현(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언어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호, 한국어교육학회, 217쪽~250쪽.
- 박숙영(2005). 한국어 어휘교육을 위한 언어 활용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200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언어교수 학습 방안 연구, <문창어문논집> 43호. 문창어문학회, 97쪽~124쪽.
- 신자영(2005). 한국어 언어의 다국어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28호, 이중언어학회, 185쪽~203쪽.
- 송대현·윤정아(201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교육 내용 연구,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323쪽~348쪽.
- 오명희(2012). 영어권 초급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언어표현 지도 방안.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연·최은지(2007).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언어 사용 연구, <이중언어학> 34호, 이중언어학회, 299쪽~321쪽.
- 이정현(2010).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 교육 양상 연구-연세대 교재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16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5쪽~224쪽.
- 임근석(2010). 『한국어 언어 연구』, 월인.
- 임홍빈(2002). 한국어 언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국어학> 39호, 국어학회, 279쪽~320쪽.
- 장옥경(2011).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체언+용언’형 언어목록 선정 연구, 경희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윤정(2016). 초급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숙향(2007). 오류 분석을 통한 연어 교수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정정(2015).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육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42호,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391쪽~410쪽.

한송화·강현화(2004). 연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5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5쪽~318쪽.

허영임(2010). 한국어 교육용 연어 선정 연구 : [체언+용언]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영화(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주제중심 연어교육 방안,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enson, E., Benson, M., & Ilson, R. (1997).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word combinations* (2nd ed.).

Amsterdam, The Netherland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Firth, J.R.(1957). *Modes of meaning*, J.R. Firth, Paper in Linguistics 1934-195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Geoffrey Williams(2001). Sur les caractéristiques de la collocation, *TALN*.

Mel'čuk, I(1998). Collocations and lexical funtions. In *Phraseology: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s* 23-54, Oxford: Clarendon Press.

Richards, J.C.(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 Press.

『Alter ego, 1-3』, HACHETTE(2007)

『Café crème, 1-2』, HACHETTE(2010),

『Connexions, 3』, Didier(2008),

『Vocabulaire progressif du français, 1-2』, CLE(2015)

130 이증언어학 제66호(2017)

장윤정(JANG Younjung)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강사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전자우편: yjung@sm.ac.kr

이세훈(LEE Sehoon)

숙명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강사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전자우편: 2sehoon@gmail.com

접수일자: 2017년 01월 31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03월 3일

게재확정: 2017년 03월 17일